

“차세대 디카 시장 강자는 마이크로 포서드를 적용한 초소형 DSLR”

올림푸스한국,
마이크로 포서드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 가져

○○○ 취재 | 박지연 기자 |

올림푸스가 기존 DSLR 절반 크기의 획기적인 DSLR로 카메라시장에 승부수를 던졌다.

올림푸스한국(대표 · 방일석, www.olympus.co.kr)이 지난 10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진행한 ‘올림푸스 마이크로 포서드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공격적인 DSLR 시장 공략 의지를 표명했다.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은 DSLR카메라 시스템(본체 및 렌즈)의 크기를 절반크기 정도로 줄이면서도 올림푸스 포서드 DSLR카메라와 동일한 이미지 센서를 탑재해 뛰어난 이미지 촬영 성능을 보여주는 올림푸스 DSLR 카메라의 신 규격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전 세계 2대 밖에 없는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이 적용될 시제품도 직접 공개되는 한편, 일본 올림푸스의 스키타 유키히코(SUGITA YUKIHIKO) 마이크로 포서드 총괄 책임자와 마쓰자와 요시노리(MATSUZAWA YOSHINORI) DSLR개발 팀장, 올림푸스한국 권명석 영상 사업본부장 등 주요인사가 참석하여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의 개발 배경 및 한국시장에서의 전략 등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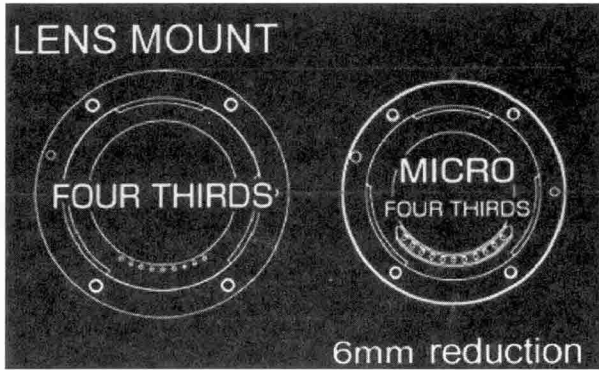
마이크로 포서드 총괄 책임자인 스키타 유키히코씨는 “최근 DSLR이 인기지만 현재 전체 디지털카메라 시장에서 DSLR이 차지하는 비중은 7%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마이크로 포서드를 구상하게 된 시발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조사 결과 콤팩트 디카 구매자의 20%가 DSLR 구입을 검토하다가 복잡한 사용법, 거추장스러운 크기, 무거운 중량 등으로 인해 DSLR구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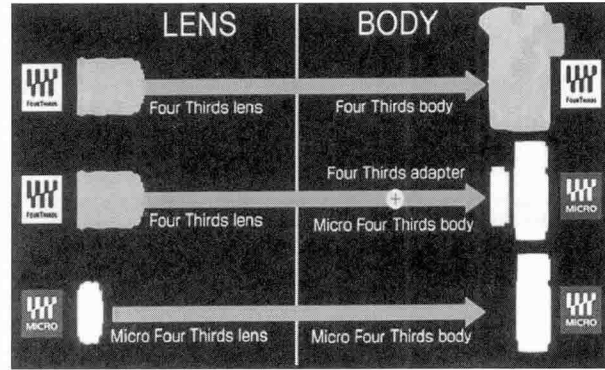
▶ 올림푸스한국이 지난 10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올림푸스 마이크로 포서드 전략 발표 기자간담회 광경



▶ 모델들이 초소형 크기를 강조하기 위해 마이크로 포서드 DSLR카메라의 크기를 자로 재보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소형화를 위해 마운트 바깥지름을 포서드보다 6mm 단축한 것과 마이크로포서드 및 포서드의 렌즈 호환도.



포기한 잠재고객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고객 불만에 대응하고 향후 지속적인 DSLR 시장 확산에 기여하고자 카메라 크기를 줄이는 동시에 최신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표준으로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뒤이어 마쓰자와 요시노리 개발 팀장은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의 기술적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이 기존 디카에 비해 절반 정도의 두께를 가질 정도로 슬림화를 이룰 수 있었던 구조적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마쓰자와 요시노리씨는 “렌즈가 결합되는 부분인 ‘마운트’와 빛을 받아들이는 부분인 ‘이미지센서’까지의 거리를 약 50% 이상 줄이게 되면 DSLR카메라의 두께와 크기가 현재 생산되는 모델의 1/2수준으로 줄어든다.”며 “렌즈를 결합하는 ‘마운트’의 외부 직경을 6mm가량 줄여 광각 및 고배율 줌 렌즈의 크기를 현저하게 작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렌즈와 카메라를 이어주는 전기접점을 9개

에서 11개로 늘려 앞으로의 향후 디지털 렌즈 기술 발전에도 대응했으며, 라이브 뷰 기능 또한 더욱 편리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포서드 렌즈와의 호환 문제는 렌즈어댑터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올림푸스한국 영상사업본부장 권명석 상무는 “올해 출시된 세계 최소형 DSLR E-420에 대한 세계적인 반응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 DSLR이 수용하지 못한 니즈를 반영한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 카메라들이 한국 시장에서도 DSLR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마이크로 포서드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이크로 포서드 시스템이 적용된 카메라는 휴대성이 뛰어나고 조작성이 간단해 누구나 쉽게 휴대하고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어 시장에 잠재되어 있던 DSLR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한국시장 공략을 위한 총력전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림푸스한국은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시제품 공개와 함께 올림푸스의 역사적인 카메라들을 모아 올림푸스 카메라의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여기에는 1938년 만들어진 6x6cm 필름 사이즈 카메라 Semi Olympus II, 1955년 생산된 35mm 필름 카메라 Olympus 35S 3.5 등 이제는 흔히 볼 수 없는 골동품 카메라의 실물과 최신형 플래그십 DSLR카메라 E-3 등 카메라 20 여종과 렌즈 20 여종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 올림푸스한국은 마이크로 포서드 카메라 시제품 공개와 함께 올림푸스의 역사적인 카메라들을 모아 올림푸스 카메라의 발자취를 볼 수 있도록 전시했다.

◎ 용어 설명 ◎

○ 마운트 : DSLR 카메라 렌즈와 카메라 바디의 결합부